

장시간 근로 관행에 칼 뽑았다

제조·항공현장 50곳 집중 점검

노동부, 두 달간 합동 기획감독
교대제·특근 남용 사업장 정조준
연속 심야노동 개선 시정 유도
위법 시 과태료·사법조치 병행
항공사 승무원 근로실태도 점검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운영이 고착된 산업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 시간 위반과 산업안전 취약 위험이 높은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 주야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 특별연장근로의 반복 활용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감독 항목에는 ▲노동 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준수 여부 ▲기계·설비 안전조치 이행 ▲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과로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등 노무·안전보건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7~8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게 보장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의무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개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등 자율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현장부터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동서발전·울산대, 태양광 모듈 세계 최고상

3D프린팅 융합 기술로 한국 첫 수상

한국동서발전은 울산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통해 개발한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모듈’이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인 ‘BLT Built Design Awards 2025’에서 ‘올해의 건축제품 디자인상’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국이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최고상을 수상한 사례로, 산업 기술과 예술적 조형성을 융합한 혁신적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3D프린팅 융합태양광 모듈’은 비정형 곡면 구조의 건물 외벽에도 태양광 모듈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공지능(AI) 기반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태양광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어, 건축물의 디자인적 완성도와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

이 기술은 2022년부터 동서발전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으로 울산대학교 김범관 교수연구팀이 주도해왔다. 지난 8월에는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외벽에 실증 설치되어 발전 효율, 구조 안정성, 환경 적응성을 검증받았다.

‘BLT Built Design Awards’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 5대 국제 건축·디자인 어워드로, 건축·인테리어·조경·건축제품 등 4개 부문에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심사한다. 올해는 68개국에서 900여 개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심사위원단은 울산대 김범관 교수 연구팀 출품작에 대해 “자연과 기술, 조형성과 지속가능성을 융합한 탁월한 작품으로, 미래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스위스 바젤(Base)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나라살림 적자 88조… 역대 두 번째 규모

기재부 “7~8월 추경 집행 영향”

법인세 ↑ 부가세 ↓ 세수 구조 변화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8조 원에 달했다. 이 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2번째로 큰 수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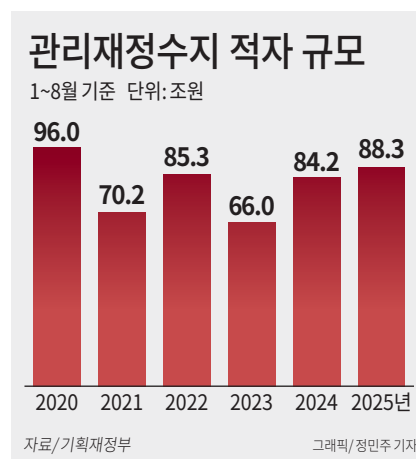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조 원 늘어난 431조7000억원, 총지출은 38조4000억 원 늘어난 485조4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금 흑자(34조6000억 원)를 제외한 지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96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7월부터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111조 원 수준이 예상되며, 그



수준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8월 집계된 적자는 추경 집행이 일부 반영된 결과지만 전액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월 누계 국제수입은 260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7조8000억 원, 소득세가 9조6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조8000억 원(+2조2000억 원), 기금수입은 148조1000억원(+4조2000억원)으로 모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20조4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구미 NG 설비 공동 인프라 구축

가스공사와 협업해 효율 극대화
공급망 이관으로 예산 2000억 절감
석탄대체 발전소 연료망 완성

한국서부발전이 한국가스공사와 구미 천연가스(NG) 공급설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의 대표 사례를 완성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15일 대전 오노마호텔에서 ‘구미 NG 공급설비 양수도 계약 서명식’을 열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가스공사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과 김환용 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비는 서부발전이 건설 중인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로, 경북 칠곡북삼에서 구미까지 약 21.5km 구간의 공급망을 잇는 사업이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는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폐지되는 태안 석탄 화력 1·2호기를 대체하는 국내 첫 석탄 화력 대체 사업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서부발전은 당초 북삼구미 구간의 설비 건설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환상망 구축 계획과 중복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장기간 협의를 거쳐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이 해당 구간 설비를 먼저 건설해 가스공사에 양도하고, 가스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구미 군위 구간 환상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 같은 협업을 통해 건설비와 유지보수비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양 기관은 해당 사례로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정부와 공기업 간 긴밀한 협업으로 실현한 국가 예산 절감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도 협력해 국가시설 중복투자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향후 국가 기반시설 분야에서 유사한 중복투자 방지 사례를 지속 발굴해, 공공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문화예술로 농촌 활력 더한다

양주·김제·군위서 예술교육 진행

농협중앙회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해 농업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이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문화예술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진흥원은 만65~74세의 고령층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예

술누림 6574-예술로 채우는 여가’를 새롭게 선보였다.

농협은 해당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양주 회천농협(무용) ▲전북 김제 광활농협(미술) ▲대구 군위 팔공농협(음악·인문학)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 감으로써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창작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농촌에서는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쉽게 접하고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상무는 “농협은 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본 사업을 통해 농촌의 문화예술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며 “농심천심 운동과 연계해 앞으로도 농촌복지 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오늘부터 신규기관 공모
140명 수료 성과 기반 저변 확장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이는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현장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방침이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기

반을 강화하고자 도입·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기관 2개소(시설원예-순천대, 축산-연암대)를 지정·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7개 교육과정을 통해 약 1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후속 과정 개설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늘어나는 현장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시설원예 및 축산 분야에서 각각 1개소씩을 선정해 총 2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대학 및 농업 교육기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